



전통문화
팽나무

이순신 내륙 행차 때 쉼터였던 팽나무



지정번호

지정년도

관리기관

수령

수고

흉고둘레

합천-12-04-41

2004

합천

551년

30m

6.2m



경남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442

35 ° 24 ' 49.00 " N

128 ° 05 ' 44.22 " E

크게 자란 느티나무와 나란히 있는 보호수(합천-12-04-41) 팽나무는 마을 앞의 갈림길 모퉁이에서 잘 자라고 있다. 쉼터의 자리도 넓게 조성되어 있다. 팽나무의 나이는 551년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 이상을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무높이는 30m, 가슴높이둘레는 620cm, 밑동둘레는 830cm 정도이다. 나무갯은 너비가 25m 가량이다. 원줄기는 2.5m 높이에서 큰 가지가 몇 갈래로 갈라져 위로 향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쪽으로 뻗은 가지는 겹쳐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멀리서 보면 2그루의 다른 나무가 하나의 나무로 보인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엿보는 것이다. 주로 바다에서 싸운 장군이 내륙의 오지를 지나갈 때 잠시 머물렀던 이야기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였다. 이순신 장군이 도원수인 권율 장군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가는 도중에 시간이 오후로 접어들자 목적지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잠시 쉬어 가기로 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일행은 팽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하룻밤을 마을에서 지냈다.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이 잘 나타나는 일화가 있다. 장군은 마을에 머물면서 시종에게 말하였다. 쌀밥은 지을 때는 쌀이 부족한 이곳 삼가면의 쌀로 밥을 짓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장군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종들이 이곳의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장군은 이 말을 듣고 시종들을 매질하고 쌀을 되값아 주었다.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 쉼터에서 쉬어갔다는 안내판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표지판이 없다. 팽나무는 마을의 정자목이며 당산목이다. 바로 인접하여 자라는 커다란 느티나무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쉼터의 그들은 팽나무와 느티나무의 나무갯이 맞닿아 있어 매우 넓은 편이다.